

대선 후보·여야 정치권 “5월 광주정신 계승”

NEWS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5·18민주화운동 다시 정치 중심에…최대 규모 집결 각 정당 대표·국회의장 등 전야제 참여…집중 유세 헌법전문 수록 등 메시지에 관심…김상옥도 광주행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인 광주가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5·18 주간이 6·3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일 정도 앞두고 있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 총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각 정당의 대선 주자와 인사들이 대거 5·18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한다.

앞서 광주시는 우원식 의장 등 국회의원 전원에게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했다. 강기정 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전했다.

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 기념식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궐위돼 참석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더 많은 정치권과 인사들이 5·18 희생자들에 추모의 뜻을 전하고 민주화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집결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부터 광주·여수·순천·목포 등 전남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진행한 후 오는 17일 5·18 전야제와 18일 기념식에도 참석

한다.

이 후보는 5·18 주간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더 이상 5·18 편협과 왜곡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민주당 경선 후보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금남로 전일빌딩245를 찾아 “광주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 이어 같은 당 소속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유세전을 벌인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를 맞아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첫날에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5·18민주묘지 참배 및 국회의원 기념식수, 전남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민주평



유영봉안소 둘러보는 의용소방대원들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유영봉안소를 둘러 보고 회귀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화대행진, 전야제에 이어 18일 기념식에서 축사와 인사말을 한다. 우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번 비상계엄·탄핵 정국 극복 과정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5·18 정신을 추념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고,

김문수 후보는 18일 기념식에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7일 전야제 또는 18일 기념식 광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4월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5·18 정신을 받들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 입장을 전하

기도 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17일 전야제부터 기념식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5·18 기념 주간에 맞춰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옥 의원은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제와 전야제, 기념식까지 소화하

며 소통에 나선다.

이번 5·18 기념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첫 국가적 추모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적으로 ‘광주정신’이 재조명되면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특별법 및 보상법 개정, 진상 규명, 국가 주도의 사적지 활용 등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공약에 담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많은 이들이 광주를 새롭게 봐주고 있다”며 “올해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한 만큼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추제에 모두가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45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금남로 금남로공원 일대에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추제’를 개최한다.

또 광주시는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밤에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오월 텐트촌’을 꾸려 1980년 5월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정치권이 한데 모여 오월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5·18 진압주도’ 정호용 선대위 위촉, 김문수 규탄”

5·18단체·정치권 비판 성명

5·18 단체와 정치권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뒤 철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호용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이끌며 광주시민을 무력 진압한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가 고위 자문직에 임명한 행위는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문수 선대위가 국민적 분노에 밀려 인선을 철회했지만, 이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다”며 “그 자체로 선대위의 역사 인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보단도 성명을 내 “정호용 임명은 단순한 인사 실책이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재집결”이라며 “민주주의를 학살한 인물에 대한 캠프에 영입한 김문수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민주당 의원의 “정호용과 같은 내란범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철회한 행위는 김문수 후보가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는 ‘내란의 후

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김 후보는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후보 선대위는 전날 정 전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를 캠프로 영입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5시간 만에 위촉을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할 생존자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시, 노벨문학상 속 ‘소년의 길’ 함께 걷자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한강작가 견던 길 관광코스

5·18기록관~옛 엽식자병원~상무관~효동초 연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광주 출신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보며,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걷는 인문투어가 펼쳐진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인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곳곳을 하나의 길로 묶은 ‘소년의 길’을 조성, 걸으며 탐방할 수 있는 인문투어를 운영한다.

‘소년의 길’은 소설의 주인공 동호가 민주주의를 외쳤던 길 2.1km와 한강 작가가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북구 중흥동 일대 1.8km로 구성됐다.

‘소년의 길’에 담긴 장소마다 역사적 의미와 문학적 감성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도 제작하는 등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문화체험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월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인문투어 프로그램은 오는 17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두 차례 운영한다. 프로그램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다.

소년이 걸었던 길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광주YMCA~옛광주직접사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상무관, 옛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전일빌딩 245’ 등으로 이어진다. 작가가 걸었던 길은 ‘골목길 문화사랑방(가칭), 효동초등학교, 중흥도서관, 전남대학교’ 등으로 이어진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가

기증한 ‘소년이 온다’ 책과 한강 작가의 도서 등을 전시한다. 한강 작가의 모교인 효동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생 눈높이에 맞춘 건반 모양으로 한강 작가의 책 표지를 전시한 조형물을 선보인다.

소년이 걸었던 길과 작가가 걸었던 길을 잇는 푸른길공원과 연계한 동명동 법원 근처 농장다리에 위치한 ‘푸른길 문화센터’ 내에서는 한강 작가와 김대중 대통령 등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주요 수상자에 대해 전시한다.

전일빌딩245에서는 시민 518명의 한강 작가 작품 필사본을 전시하고,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문학라운지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소년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요 장소 설명과 소설 문구를 수록한 안내 지도를 제작해 골목길 문화사랑방(가칭), 전일빌딩245, 독립서점 등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행복, 포만, 즐거움

2025.5.29.~6.1. 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군교육지원청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	교육장 정병국 본부장 김성면 지부장 장흥모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 서영광농협조합장 강상호 굴비굴농협조합장 김남철 백수농협조합장 조형근 영광축협조합장 김용출 영광산림조합장 정태범
---	-------------------------------	--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안동수력원가발전소 KH 영광군수협 관비리협